

2010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저출산 대책으로서 ‘만 5세 조기취학’의 쟁점은 무엇인가?”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해에 이어 3월 25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만 5세 조기취학’을 주제로 2010년 ‘제1차 육아선진화포럼’을 개최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5일 「제1차 저출산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추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위원회가 제안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방안의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자 한다.

이번 육아선진화 포럼에서는 이연승 한국유아교육학회장과 이미정 한국보육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서영숙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장 등 총 6명의 토론자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다. 주제발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 주제 1 만5세 초등학교 취학' 과연 저출산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인가?
- 주제 2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기기' 안의 고찰

종합토론

- 서영숙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장
- 문미옥 전 한국유아교육학회장
- 정혜손 한국국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 김애리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 김설한 인천문학초등학교 교사
-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과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가?

이연승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대로 ‘만5세아 취학’은 뇌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유아발달 특징을 무시하고 교육하는 것은 정신기능의 장애와 심각한 학습결손을 낳을 수 있다. 둘째, 저출산 현상은 자녀 요인, 소득 요인, 가치관 요인, 사회·직장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유아기 자

녀양육비를 낮춘다고 출산율이 제고된다고 보기 는 어렵다. 몇몇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유치원시기보다 초등학교 이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저출산은 유아기의 자녀양육비가 문제가 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후의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가 더 큰 문제가 되어 자녀출산을 꺼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교육비는 학령기가, 사교육 시간도 학령기가 유아기보다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라면 유아기의 사교육비가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결국,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취학 방안은 조기 사교육과 학습 경쟁이라는 한국 사회의 이상 과열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그러한 현상이 어린 유아기까지 미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초등학교 조기 취학 방안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는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 생산 활동 인구수의 감소를 우려하여 그 수를 늘여 보겠다는 단편적인 발상이라 하겠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기기’안의 고찰

이미정 (한국보육학회장)

유럽국가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그 주요원인을 영아보호, 교육, 양육수당 등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정책의 효과로 보고 있다. 스웨덴도 출산율이 1999년 1.52

까지 감소 하였지만 출산·육아 휴가 등 가족정책의 확대로 2006년도에 1.85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스웨덴 모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각각 6세, 8세이다. 이에 반해 5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있는 영국은 프랑스보다 합계출산율이 낮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족, 보육·교육정책, 양육수당 정책 등 의 확대·강화가 주요 요인이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합계출산율은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5세 입학체제를 취하는 영국조차도 만 6세 이후의 입학이 조기입학보다 아동의 발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보고가 나왔으며, 국내 일련의 선행연구에서도 취학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와 적응이 좋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취학연령 1년 단축과 관련해서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이 영유아 부모 323,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대다수는 취학연령 만 5세 하향조정과 관련하여 출산 장려,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절감 효과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만 5세아 전원에게 무상보(교)육비를 국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만 5세아 무상보(교)육비는 이미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만 지급한다면 초등학교 조기입학 후 모든 만 5세아에게 의무교육비용을 지급하는 것보다 정부의 비용절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비 절감 및 체감효과도 클 것이다.